

석사학위논문

피아노를 통한 조기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장 홍 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양 송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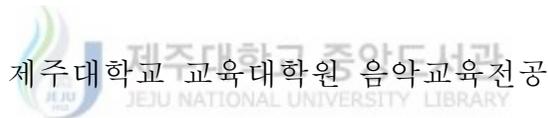
2005년 12월

피아노를 통한 조기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장 홍 용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일



제출자 양 송 연

양송연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피아노를 통한 조기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양 송 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장 홍 용

음악은 음을 소재로 하는 시간적 예술로써 인간의 두뇌발달, 신체발달, 심미발달, 그리고 정서발달에 가장 도움을 주는 예술이다. 음악의 미적경험을 통해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라고 볼 때, 음악교육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두뇌발달, 신체발달, 심미발달, 정서발달 등의 성장이 어릴 때 일수록 빠르게 발달하며 그 영향이 한 평생을 좌우하는 인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며,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하여 조기 음악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피아노는 조기 음악교육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악기이다. 그 이유는 피아노는 다른 악기들에 비하여 음역이 넓고, 화성악기여서 음악의 3요소를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며, 악보와 건반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서 조기 음악교육에 가장 적절한 악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 피아노 교육은 바로 조기 음악교육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아노 교육은 단순히 유능한 연주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속에 음악을 심어줌으로써 아름답고 건전한 인격을 갖추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교육의 도입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신체발달 및 정신발달 단계와 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맞는 효율적 지도방법을 연구하여 피아노를 통한 조기 음악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피아노 조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문헌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함으로써 피아노 조기 교육의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기 음악 교육에서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기 음악 교육은 전문가를 만들거나 연주를 만들려는 것에 그 교육 목적을 두지 않고 음악을 통해서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음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주적인 학습을 존중하는 오늘날의 교육에 있어서 내적 동기유발인 아동들의 흥미와 욕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발시켜 이를 토대로 하여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넷째, 과열된 교육열로 인하여 처음부터 바로 피아노 실기와 악보 읽는 법을 동시에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음악교육의 의의를 살려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게 지도해야하며, 종래의 주입식 위주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모든 가능성에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성숙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섯째, 개인지도와 그룹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심층 있는 연주능력과 음악성을 동시에 개발시킨다.

일곱째, 초견능력을 신장시켜 악곡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음악성을 키우고 나아가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여덟째 알맞은 교재를 선택하여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하며, 흥미를 잃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II. 본론	2
1. 초기 음악 교육의 인지 발달 단계	2
1) 1단계(0-2세) : 감각 동작기(sensori-motor stage)	3
2) 2단계(2-7세) : 전 조작적 사고기(preoperational thought stage)	3
3) 3단계(7-11세) :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 stage)	4
4) 4단계(11-15세) :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 stage)	4
2. 초기 음악교육의 목표와 가치	5
1)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6
2) 도입기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	6
3. 피아노 교육의 효과와 동기유발	7
1) 피아노 교육의 효과	7
2) 동기유발	8
4. 피아노 교육의 문제점	9
5. 초기 피아노 교육을 위한 실제	10
1) 교사의 자세	11
2) 첫 레슨	13
3) 피아노를 처음 시작할 때의 메소드	14
(1) 무선(無線)악보로 시작하는 피아노 건반 누르기	15

(2) 무선에서 5선으로 접근하기	16
4) 개인지도와 그룹지도	17
5) 올바른 자세	18
(1) 앉는 자세	18
(2) 손과 손목의 자세	20
(3) 팔과 팔꿈치 자세	22
6) 손가락 훈련법	22
(1) 운지관(運指觀)의 정립	22
(2) 손가락 연습	22
7). 기초주법	24
(1) 레가토(legato)	24
(2) 스타카토(staccato)	25
8). 초견	27
9). 피아노 기초 단계의 교재분석	28
(1) 바이엘(Beyer) 교본의 특징	29
(2) 베스틴(Bestinen) 교본의 특징	31
(3) 알프레드(Alfred) 교본의 특징	33
(4) 어드벤처(Adventures) 교본의 특징	34
Ⅲ. 결론	26
참고문헌	28

악 보 목 차

악보 1. 5선 없이 기보된 선율	13
악보 2. 첫 레슨에 적합한 테크닉	14
악보 3. 오른손 손가락 연습	23
악보 4. 왼손 손가락 연습	24
악보 5. 양손 갈려가기 손가락 연습	24
악보 6. 양손 같이가기 손가락 연습	24
악보 7. 레가토 오른손 연습	25
악보 8. 레가토 왼손 연습	25
악보 9. 스타카토 연습	26
악보 10. 메조스타카토 연습	26
악보 11. 스타카티시모 연습	26



그림 1. 앉는자세	18
그림 2. 손과 손목의 자세	20
그림 3. 잘못된 손모양	21
그림 4. 손목과 손등의 자세	21
그림 5. 손가락 번호	2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음악은 음을 소재로 하는 시간적 예술로써 인간의 두뇌발달, 신체발달, 심미발달, 그리고 정서발달에 가장 도움을 주는 예술이다. 음악의 미적경험을 통해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라고 볼 때, 음악교육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두뇌발달, 신체발달, 심미발달, 정서발달 등의 성장이 어릴 때 일수록 빠르게 발달하며 그 영향이 한 평생을 좌우하는 인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며,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하여 조기 음악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피아노는 조기 음악교육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악기이다. 그 이유는 피아노는 다른 악기들에 비하여 음역이 넓고, 화성악기여서 음악의 3요소를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며, 악보와 건반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서 조기 음악교육에 가장 적절한 악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 피아노 교육은 바로 조기 음악교육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아노 학습은 오른손, 왼손 그리고 페달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리듬, 멜로디, 화음 그리고 다이내믹 등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동안에 저절로 집중력이 길러지며, 두뇌발달, 신체발달, 심미발달에 도움을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원만한 인격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아노 교육은 단순히 유능한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속에 음악을 심어줌으로써 아름답고 건전한 인격을 갖추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교육의 도입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신체발달 및 정신발달 단계와 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맞는 효율적 지도방법을 연구하여 피아노를 통한 조기 음악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피아노 조기 교육의 필요성과 학습에 있어서 올바른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피아제(Piaget)의 인지 발달론에 근거하는 음악학습단계를 살펴보고 조기 피아노 교육에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즉 짧은 문장을 기억할 수 있고, 짧은 멜로디를 모방할 수 있는 전 조작적 사고기 (preoperational thought stage)의 5세경 어린이부터, 소리를 기억하고 배운 것을 반복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된 민요를 쉽게 부를 수 있는 6세의 어린이,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 stage)에 속하며, 음악의 썸머림, 음색, 빠르기를 구별할 수 있고 화음을 느끼기 시작하며 창조적인 상상력이 왕성한 7세의 어린이, 음악적 능력의 기반이 마련되는 결정적 시기인 8세의 어린이, 수 개념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음계 및 음표의 활용이 용이한 9-10세의 어린이, 집단에의 소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적으로는 화음 감지력이 크게 향상되는 11세경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튼튼한 음악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피아노 기초 교육의 포괄적 학습 내용과 바람직한 지도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방법은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였고, 선행 석사논문 및 각종 저널 기사를 참고하면서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약 20년간 지도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조기 피아노 학습의 올바른 지도 방법, 초견지도, 교재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본들의 특징을 분석연구 하였다.

II. 본 론

1. 초기 음악교육의 인지발달 단계

인지발달이란 인지구조의 지속적인 질적 변화의 과정을 말하는데, 피아제(Piaget)는¹⁾ 인지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들은 불연속적인 단계가 아니라 발달과정의 개념화를 위해 계속적인 흐름을

1) Piaget Jean(1896 ~ 1980), 스위스의 심리학자, 어린이의 정신발달, 특히 논리적 사고 발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식론의 제반 문제를 추구하였다. 주요저서로는 <언어와 사고>, <발생적 인식론 서설> 등이 있다.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이다.

각 발달단계는 그 출현하는 차례에 있어서는 변하지 아니하고, 발달은 소극적인 방법에 따른 계속적인 흐름으로써 새로운 단계는 앞의 단계와 종합된다.²⁾

Piaget의 인지 발달론에 의한 음악 학습단계는 보통 감각 동작기(sensory-motor stage), 전 조작적 사고기(preoperational thought stage),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 stage),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 stage)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1) 1단계(0-2세) : 감각 동작기(sensory-motor stage)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감각작용이다. 이 시기에 운동신경, 근감각(筋感覺) 등과 함께 청감각(聽感覺)이 발달하는데, 생후 2개월경부터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5개월 전후에는 음악을 듣고 느낌을 몸짓으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유아의 청 감각에 관심을 갖고 음악적 환경을 제공한다면 아동의 음악적 감각에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유아의 음악적 체험은 흔히 부모의 품안에서 음악적인 느낌에 간접적으로 반응하는 일부터 시작하며, 따라서 유아와 부모가 함께 음악을 듣고 음악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흉내 내어 보거나, 간단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의 놀이를 통해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유아에게는 좋은 음악적 감각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2단계(2-7세) : 전 조작적 사고기(preoperational thought stage)

언어의 출현으로 영상, 언어 등의 상징체계를 통한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 논리적 사고는 불가능하므로 전 조작기라고 한다.

이 단계의 아동들은 청감각과 반응력이 뚜렷이 발달하므로 이에 맞는 적절한 음악적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게 되면, 소리의 셈여림, 음높이, 음길이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따라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이 시기가 음악적 능력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청감각과 반응력이 뚜렷이 발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2) 이흥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p.70.

3) 정원식·이상노·이성진 공저(1988), 「현대교육 심리학」, 교육출판사, p.65.

연령별 음악적 능력을 살펴보면, 3-4세의 아동들은 노래와 리듬을 흉내 낼 수 있고, 5세경의 아동들은 짧은 문장을 기억할 수 있고, 짧은 멜로디를 모방할 수 있다. 6세의 아동들은 소리를 기억하고 배운 것을 반복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된 민요를 쉽게 부르고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아동들은 신체를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아동들에게는 노래 따라 부르기, 흐름결에 따라 박수치기, 노래의 빠르기에 따라 걷거나 뛰기 등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신체 동작을 통하여 음악을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는 신체동작을 수반한 음악놀이 등을 통하여 청각감과 반응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3단계(7-11세) :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 stage)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인지적으로 뚜렷한 발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 면에서도 폭넓게 성숙하기 시작한다. 7세경의 아동들은 음악의 셈여림, 음색, 빠르기를 구별할 수 있고 화음을 느끼기 시작하며 창조적인 상상력이 왕성해지므로 리듬과 멜로디의 공부는 이 기간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

8-9세는 음악적 능력의 기반이 마련되는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청각각도 가장 결정을 이루는 시기이며 또 수 개념이 9세에서 점차 발달하여 10세에서 급속히 발달하기 때문에 음계 및 음표의 활용이 용이하고 손의 근감각과 손놀림이 발달하여 무리 없이 피아노를 다룰뿐더러 음악에 대한 기호(嗜好)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아동들의 청각감을 자극하는 음악놀이나 악보읽기 및 쓰기 등과 함께 피아노 학습에 필요한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음악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피아노 학습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0-11세경이 되면 아동들은 집단의 소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적으로는 화음 감지력이 크게 향상된다.

4) 4단계(11-15세) :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 stage)

이 시기는 음악을 통하여 지적인 창조성에 이르는 과정이 풍부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악기를 통한 음악적 경험을 하여도 좋고, 감상을 통해 음악과 향상 접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고의 논리적 조작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고, 가설적 언어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과학적 추리와 가설 설정,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등 고도의 추상적 사고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의 교육은 음악적 현상의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고, 섬세하게 곡의 구성이나 구조를 이해시키는 분석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음악의 여러 이론들의 본격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기 음악교육은 아동들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음악학습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단계에 맞지 않는 무리한 학습은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아동들이 싫증을 내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학습이론의 정립과 각 단계에 맞는 학습내용의 체계적인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조기 음악교육의 목표와 가치

조기 음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동들을 즐겁게 하는데 있다. 음악을 통하여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노래나 리듬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며, 감정과 정서를 아름답게 순화하여 원만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 자기 표현능력을 함양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된 사회인으로 자라기 위하여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하여, 조기 음악교육의 접근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첫째,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길러야 한다.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스스로 음악을 하려는 태도를 키운다는 것은 조기 음악교육의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⁴⁾ 음악에 반응하는 능력이나 태도는 일상생활 환경만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둘째로, 자기 표현능력을 기른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소리가 나는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음색에는 모두 흥미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는 리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리듬기구는 음색의 다름이나, 음의 고저 지속시간의 차이에 대한 식별력을 기르고, 리듬감을 높여 자기 표현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4) 유덕희(1983), 「음악 교육론」, 개문사, pp.24-25

셋째, 음악적 감각의 발달을 도모한다. 음악적 감각의 발달이 아동들의 음악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겠다. 음악적 감각은 음악적 능력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강조되어야 하지만 흥미나 교육 등을 무시해서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자칫 교육에 중점을 두어 흥미를 잃거나 흥미에만 중점을 두어 음악적 감각이 유치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적 감각은 유아기로부터 급상승하면서 발달하여, 9-10세에 이르면 다소 상승곡선이 완만해 지고 13세쯤 이후부터는 아주 완만하게 발달한다.

넷째, 음악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 창조성을 기른다. 아동기의 음악교육에서 또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지도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룹지도를 통하여 사회성을 기르고, 간단한 음악형식 교육을 통하여 창조성을 길러야 한다. 음악은 아무리 단순한 형식이라도 감각과 기분,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음악활동을 통하여 여러 감정체험을 하면서 원만한 인격이 형성되고 음악적 능력이 성장되어 지는 것이다.

1)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아동들에 대한 피아노 교육은 모든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아동기 음악 교육은 전문가를 만들거나 연주를 만들려는 것에 그 교육 목적을 두지 않고 음악을 통해서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 전체를 운택하게 할 수 있는 음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들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성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하고, 아름다움에 반응할 줄 아는 심미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해야 한다.⁵⁾

피아노는 악기 구조상 현악기나 관악기에 비하여 건반이 있어서 음높이를 시각화하여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동들의 근육과 지능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로도 사용될 수 있다.⁶⁾ 뿐만 아니라 피아노는 아동의 잠재되어 있는 개별적인 음악적 재능과 소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를 개발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악기라 할 수 있다.

5) 이성삼(1982), 「음악 교수법」, 세광출판사, p.2.

6) 성진희(1994), 「음악을 배우며 즐거움 얻는 건반 경험 프로그램」, 서울음악교육, p.55~58.

2) 도입기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

코다이(Zoltan Kodaly 1882-1967, 헝가리)⁷⁾는 악기의 연주활동은 악보의 시청 능력을 갖추므로써 가능하다고 했으며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악기를 지도하지 않았다.⁸⁾ 코다이(Kodaly)의 메소드(Method)를 살펴보면, 처음 단계에서는 뛰기, 걷기, 발 구르기 등을 통한 박자 개념의 이해와 간단한 줄기보법을 통해 리듬을 익히며, 그 다음은 Hand Sing으로 음정과 음높이의 개념을 익히며, 이후에 기보법을 익히고 완전한 음감과 계명창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기보법을 통한 가창이 가능할 때 본격적인 악기 교습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달크로즈(Jaque-Dalcrose)는 아동들의 음악 학습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학습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아동들로 하여금 신체 동작을 통해 음악 표현(리듬, 음정, 박자)을 체험하도록 하는 ‘유리듬믹스-Eurhythmics’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오르프(Carl Orff)의⁹⁾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리듬에 맞춰 말하기, 노래 부르기, 신체동작을 통한 음악표현, 즉흥 표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의 인지 발달론에 의한 학습단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주장이 된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능력을 갖게 한 다음에 본격적인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도입기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이라 하겠다.

3. 피아노 교육의 효과와 동기유발

1) 피아노 교육의 효과

피아노 교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7) Zoltán Kodaly(1882 ~ 1967), 헝가리의 작곡가·민족음악학자·교육가, 헝가리 민요의 수집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민요 연구분야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조직적인 체계를 확립, 이 연구에 바탕을 둔 혁신적 방법에 따라 헝가리 음악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행하였다.

8) 이흥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p.350.

9) Carl Orff, 독일의 작곡가·지휘자·교육가, 르네상스와 바로크에 흥미를 갖고, 킨터와 함께 음악과 체육을 결합시키는 데 힘썼으며, 또 E. J. 달크로즈의 교육노선에 따라 교편을 잡고, 이 때의 경험을 토대로 음악교육용의 독특한 작품 <술베르크>와 <카르미나부라나>를 작곡하여 독자적 작품을 확립하였다.

같다.

첫째,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다.

피아노를 칠 때는 오른손과 왼손,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 등 신체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 또한 머리로 생각해야 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하고 신체로 표현해야 하는 종합적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면 대뇌의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둘째, 음악의 기초실력이 신장된다.

피아노는 다른 악기에 비해 하나의 건반을 누르면 항상 일정한 음높이를 내주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절대음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중음(重音)을 낼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음악의 3요소인 리듬, 가락, 화음까지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

피아노를 배우고 연습하며 연주하는 모든 과정에서 집중력은 필수적이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세, 손 모양, 리듬, 음높이, 쉼여림 등을 복합적으로 신경써야 하며, 연습과정에서는 악보를 읽으면서 이를 건반을 통하여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대 연주에서는 암보(暗譜)를 해야 하고, 청중들 앞에서 연주해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넷째, 자기 표현능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자신이 청중들에게 피아노를 통해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뜻을 자기 자신의 음악으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발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기 표현능력과 발표력이 향상되며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이다.

다섯째, 성취감을 느껴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연습을 통해 곡을 완성했을 때 아동들은 자신이 음악을 이해하고 테크닉을 해결해서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더욱이 대중 앞에서 성공적인 발표를 했을 때에는 이 성취감이 배가 될 것은 당연하며 이는 앞으로의 일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일 것이다.

여섯째, 규칙적인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다.

피아노를 배우려면 규칙적인 연습을 해야 하므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훈련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피아노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지성, 감정 그리고 심성을 함께 개발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운동신경 등의 신체적 발달도 얻게 되고, 자기 표현능력, 집중력, 발표력, 자신감, 성취감, 인내력 등 많은 것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 교육은 단순한 음악교육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몇몇 학자들이 “피아노를 배우면 아동의 두뇌가 발달 한다”는 주장은 극히 당연한 이론이며 또한 이는 피아노 교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 동기유발

‘우리 아이는 피아노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 것 같다’ 라든지 또는 ‘우리 아이는 요즈음 혼자서 연습을 곧 잘 한다.’ 라든지 하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동기유발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학습자 자신의 의욕, 지도교사의 끊임없는 관찰 및 연구, 그리고 가정환경 즉 부모의 관심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학습자의 내적 동기유발이 학습하기에 알맞은 수준이 되도록 갖추어 져야 한다. 외적 동기유발은 상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 동기유발은 자신의 흥미와 욕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적인 학습을 존중하는 오늘날의 교육에 있어서 내적 동기유발인 아동들의 흥미와 욕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발시켜 이를 토대로 하여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둘째, 교사는 학습자에게 흥미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조성에 끊임없는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도교사는 학습자와 악곡의 중간에서 양자를 결합하고, 활동을 추진하며, 학습 의욕을 북돋우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록 흥미와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학습자의 능력, 과거의 체험 및 발달단계, 성격 등에 따라 다르며, 친구와의 관계, 학급의 분위기 등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악곡의 선택, 지도의 방법, 교습 환경의 조성 등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하여 보다 나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흥미와 함께 욕구의 문제도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피아노 교습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학습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야 하는데 의욕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그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욕구에는 우월에 관한 욕구, 애정에 관한 욕구, 사회적 인정에 관한 욕구, 독립에 관한 욕구, 성취에 관한 욕구, 소속에 관한 욕구 등 다양한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들이 상호 복합되어서 작용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기 피아노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동의 내적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환경과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로 이어져서 정신적인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이 피아노에 흥미를 잃지 않고 스스로 연습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유발을 시키는데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환경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람직한 음악적 가정환경으로서는, 민주적이고 즐거운 가정으로써 부모나 가족들이 생활 속에 항상 음악을 끌어들이는 분위기의 가정환경이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본다.

4. 피아노 교육의 문제점

최근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동들의 예술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조기 음악교육은, 원만한 인격체 형성, 자기 표현능력 등을 길러주는 것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조기 피아노 교육은 악기 구조상 현악기나 관악기에 비하여 아동들의 잠재되어 있는 개별적인 음악적 재능과 소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를 개발시키기 위해 매우 적합한 악기라고 판단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피아노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과열된 교육열로 인하여 진정한 음악교육의 의의를 상실한 양상을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피아노의 조기 교육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처음부터 바로 피아노 실기와 악보 읽는 법을 동시에 배우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도입기 학습자의 경우 음악의 기초적인 능력을 양성하기 전에 바로 피아노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기보법(記譜法)을 이해함과 동시에 박자, 리듬, 음정 등의 추상적 기능을 한꺼번에 학습해야 하는 다소 벅찬 부담을 안고 피아노 학습을 시작하고 진행해 나간다. 그러다보니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부담을 느끼면서 싫증을 내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

따라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에 의한 발달단계에 맞는 선행학습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20세기 세계 음악교육의 3대 거두의 이론을 살펴보면,

코다이(Kotaly)는 처음 단계에서는 음악에 맞추어 뛰기, 걷기, 발 구르기 등을 통하여 박자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간단한 줄기보법을 통해 리듬을 익히며, 손 동작으로 음정과 음높이의 개념을 익히며,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기보법(記譜法)을 알 수 있게 하고 완전한 음감과 계명창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기보법을 통한 가창이 가능할 때 본격적인 악기 교습을 권장하고 있으며,

달크로즈(Jaque-Dalcrose)는 아동들로 하여금 신체 동작을 통해 음악 표현(리듬, 음정, 박자)을 체험하도록 하는 ‘유리드믹스-Eurhythmics’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오르프(Carl Orff)의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리듬에 맞춰 말하기, 노래 부르기, 신체동작을 통한 음악표현, 즉흥 표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의 인지 발달론에 의한 학습단계에 비추어 볼 때도 타당한 주장이 된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능력을 갖게 한 다음에 본격적인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다.

5. 조기 피아노 교육을 위한 실제

아동의 피아노 교육목적은 어린 연주가의 육성이 아니라 피아노를 통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 음악의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고, 음악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피아노 주법교육을 위한 교칙본에 의거한 전통적 지도방법’보다는 피아제(Piaget)의 인지 발달론에 의한 음악 학습단계에 맞추어 교육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1) 교사의 자세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본 교수법¹⁰⁾

- By Paul A. Johnson, Ph. D¹¹⁾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배우길 원하고 남들이 자신의 방식을 인정해주길 원한다. 스스로 방향을 잡고 학습을 주도한다는 것은 곧 “성숙”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사로서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모든 가능성에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성숙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론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중에도 스스로의 계획과 학습 과정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은 “지도자”라기 보다는 학습 도우미 혹은 조연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건 그렇게 해야 돼”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내가 쓰는 방법인데...”라고 말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 간의 협력적인 우호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훈계나 지시는 그냥 교사가 하는 것을 그대로 스폰지 처럼 흡수해서 아무 생각 없이 흉내만 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보다는 학생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할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교재를 정하는데, 각 학생에 대한 적정 기대치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준비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일이다. 학생의 학습준비 정도는 교사가 가르쳐야 할 최적의 타이밍과 같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준비정도”를 학습자의 성격적·사회적 발달에 비추어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학습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가 그 시기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가르침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올바른 학습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게 된다.

어린이나 성인이나 자신의 경험은 새로운 학습의 바탕이 된다. 학생들은 나중에 자신이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배웠다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

10) PIANO PEDAGOGY NEWSLETTER No.2 p.10

11) Paul A. Johnson, Ph. D : 심리학자이자 피아니스트, 학습 치료 전문가

을 소개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경험이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수백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에, 학생들이 겪어온 경험들이나 발달상황을 무시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학생 한명 한명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수는 큰 잘못이며 나쁜 일이라고만 인식하지, 실수가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되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그들의 경험이 얼마나 값지고 풍성한 밑거름이 되는지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교사들 스스로도 항상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헤쳐 나가면서 학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가”이다. 학생들은 그것이 운지법이던, 테크닉이던, 악보 읽기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찾고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의 입장이 되어 공감하고, 도와주고, 다른 걱정들을 덜어주고, 과거에 배운 것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교사는 다음 내용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레슨에 임해야 한다.

① 우리는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특히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role model)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

② 배움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강압적이거나 혼란을 주거나 싫증나게 하거나, 기초 단계부터 너무 어려운 것을 다루는 것 모두가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다.

③ 학습은 아이들의 삶에 가치로운 것이어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야 한다.

④ 타당한 것을 배웠을 때 우리의 실생활에 연계되어 부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⑤ 학습이란 교사와 학생의 합작품이다. 평생의 학습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틀에 박힌 지식에 의해 배우는 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

⑥ 학습의 결과는 점수나 시험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⑦ 학습은 언제나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 배운 것을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⑧ 학습 환경에 위험 요소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야 한다. 학생들에게 압력을 넣기보다는 배움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이것이 교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2) 첫 레슨

첫 번째 레슨은 교사와 아동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을 편안하게 만든 후 시작한다. 그리고 교사는 항상 미소 짓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해야 할 과제와 피아노 책을 제시해야 한다.

첫 레슨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

- ① 피아노 앞에 앉는 자세.
- ② 건반에서 손의 위치 및 손 모양
- ③ 손가락 번호.
- ④ 건반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은음이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은음이 된다.
- ⑤ 건반의 형태(2개 와 3개로 연속되는 검은 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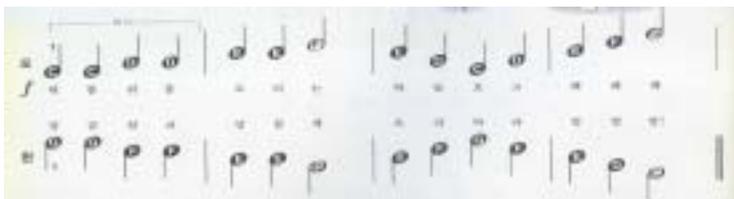
초보단계이므로 (악보 1)과 같은 5선이 없는 pre-staff 형태인데, 5선 없이 기록된 선율은 다른 새로운 개념들과 함께 악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음악을 연주하게 만든다.

초보자에게 악보를 읽는 바른 방법은, 눈을 손과 악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악보에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곡을 잘 배우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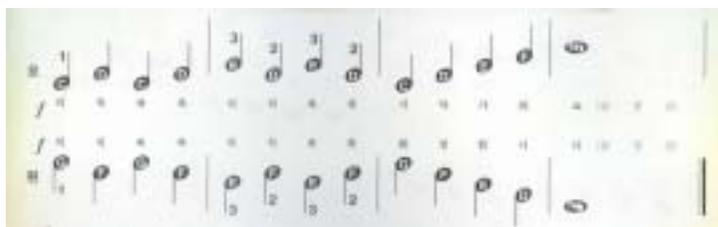
- ① 피아노를 치기 전에 악보에 있는 리듬을 익힐 것
- ② 피아노 뚜껑을 닫고 손가락 번호대로 누르면서 노래할 것.
- ③ 피아노를 연주하기 전에 손의 포지션을 잡을 것.
- ④ 피아노 건반을 보지 않고 눈은 악보에 고정시키도록 할 것.
- ⑤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계이름 또는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연주할 것.

첫 레슨에서의 이론은 음표 길이를 아는 것과, 어떤 음표가 길고 짧은지 정도만 알면 된다. 테크닉은 다음 예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의 조정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다.(악보 2)

(악보 1) 5선 없이 기보된 선율



(악보 2) 첫 레슨에 적합한 테크닉



3) 피아노를 처음 시작할 때의 메소드(Method)

(1) 무선(無線)악보로 시작하는 피아노건반 누르기¹²⁾

① 건반을 누를 때 음의 연결 즉, 레가토라는 것을 배우는데 음악적인 개념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음의 연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가 음을 길게 소리 내면서 아이도 자신도 모르게 따라 하도록 유도한다. 또는 교사가 옆에서 2번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최대한 길게 누르도록 치면서 음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듣고 따라하여 느끼도록 한다. 아이들은 손가락의 독립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게 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힘이 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손가락의 강화를 위해 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도 손가락강화 훈련이 된다.

② 무선악보는 악보읽기의 시작이므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

무선악보를 이용하여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새로운 내용을 하나씩 더해가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어렵다는 인식보다는 ‘재미있고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또한 교사도 가르치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12) 에듀뮤직(2005), Edu classic.

③ 무선악보의 단순한 악보를 시작할 때는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접근한다.

전에는 준비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유선악보를 시작해왔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5선에 대한 부담을 넘지 못해 아이들이 ‘피아노는 어렵고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못할까?’하고 아이들의 탓으로만 돌렸었다. 처음부터 음을 느끼게 또박또박 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때 음을 뭉개서 치거나 음의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을 빨리 치게 되면 레가토는 물론 음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곡을 끝까지 잘 연주하기가 힘들다.

④ 처음부터 오른손과 왼손의 사용으로 우뇌, 좌뇌의 고른 발달

과거에는 오른손은 멜로디, 왼손은 반주형태(알베르티 베이스)의 형태로 교재가 되어 있어서 주로 오른손위주 패턴의 곡이 많았지만 신 교재는 처음부터 양손으로 접근 한다. 하지만 오른손, 왼손의 캐논 형식으로 주고받는(가로의 방식) 선율이 손가락에 무리도 없고 양손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세로의 방식) 형태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아이들에게는 쉬운 알베르티 베이스라 할지라도 양손을 같이 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오른손 왼손의 패턴이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양손으로 연습하지만 같이 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효과 면에서는 양손의 연습인 것이다.

⑤ 건반을 보지 않고 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선악보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2도 간격 음의 패턴을 가지고 단순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건반을 보지 않고 악보를 보고 음을 지속하면서 연주할 수 있고, 그러므로 연속적인 악보읽기를 훈련할 수 있다.

⑥ 검은 건반 누르기와 공간적인 패턴(2도 오르내리기)을 연습하게 한다.

여러 가지 건반의 탐색으로 악보읽기의 기초를 다지며, 흰건반의 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악보가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손 모양에 집중하여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⑦ 무선악보는 초견(初見)의 시초이므로 적극 활용한다.

초견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뭉쳐있는 음의 패턴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한음 한음의 길이 및 리듬패턴이 파악이 되어야 한다. 무선악보의 단순

함은 한눈에 들어오는 간결함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2) 무선에서 5선으로 접근하기

① 줄과 칸을 구별하면서 악보읽기를 시작하는 단계
5선은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처음에 1줄에서 지도하고 그 다음은 2선, 점차 3차, 4선에서 5선까지 접근한다.

② 쉽게 악보를 읽을 수 있도록 공간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2도간격의 올라가기 내려가기는 음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도록 한다.

건반이나 손을 보지 않고서 연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악보 보는 능력이 좋아지고 연속 악보 읽는 훈련이 된다.

③ 반복되는 단순한 음표는 아이들의 정확한 리듬패턴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4분 음표에 대한 리듬이 반복되면서 쉽게 리듬을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정확한 리듬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리듬패턴을 소리 내어서 카운트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한다.(하나 두울, 세엣, 네엣..)

리듬을 박수치기 또는 리듬치기 등을 하면서 음의 길이를 눈에 보이도록 가능한 한 큰 동작으로 보여준다.

⑤ 음의 연결을 계속적으로 훈련한다.

어린 아이들이 손가락을 지탱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음을 길게 누름으로써 안정되게 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빠르게 칠 수 있게 한다.

⑥ 오른손, 왼손의 번갈아 치는 패턴

오른손, 왼손을 따로 치지만 양손을 이용해서 치는 효과를 나타내며 오른손, 왼손의 균형적인 음의 배열은 고른 손가락 도움을 주며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균형 잡힌 손 모양을 유지하도록 한다. 초기부터 알베르티 베이스 같은 형태의 리듬에다 오른손선율이 같이 나오는 형태는 의외로 아이들에게 어렵다.

⑦ 다섯 손가락자리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서 다섯 자리의 음이 나오기 때문에 건반을 보지 않고도 음을 빨리 파악하여 쉽게 다양한 음의 자리를 익힐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연속악보 훈련이 된다.

⑧ 한손씩 연습할 때 익혀야 할 숨은 교육적 내용

음의 자리, 음의 길이, 음의 연결, 음을 끊어주는 방법 등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⑨ 쉼표처리

오른손의 패턴이 끝나는 부분 손목을 들어서 정리를 한다(손목의 업, 다운). 그러므로써 경직된 손목을 유연하게 릴렉스 해줄 수 있다.

⑩ 반복되어 지는 학습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학습이 된다.

반복되는 리듬과 단순한 음의 구조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⑪ 동그란 손 모양 만들기

5도의 화성과 선율은 동그란 손 모양을 만드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⑫ 프레이즈 끝나는 부분은 손목피우기기로 마무리 한다.

손의 릴렉스의 시초이며 익숙해지면 마디 중간에서도 손목의 업, 다운을 실시하도록 한다.

4) 개인지도와 그룹지도

베스틴(James W. Bastin)에 의하면 개인지도는 교사의 지도법을 단독으로 접하고 집에서 혼자 외롭게 연습하는데서 오는 외부적 자극의 결핍으로 레슨이 진행되면 될수록 흥미를 잃게 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연주를 주저하게 되고, 성취도가 낮아서 계속하기 보다는 배우기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많은 결점이 있다고 본다.¹³⁾고 하였다.

그러나 그룹지도만으로 지도하기보다는 개인지도와 병행하여 교사와 아동과의 직접적인 상호교류와 세심한 지도를 통하여 그룹지도에서 소홀할 수 있는 피아

13) James. W. Bastin(1988), 「피아노 교수법」, 세광음악출판사, p.106.

노 주법을 보완할 수도 있다. 격일제로 지도하면 일주일에 3번의 레슨이 가능한데 이중 두 번은 그룹지도를 하여 리듬훈련, 듣기, 악보공부, 노래, 신체표현, 피아노로 이야기하기 등으로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하고 나머지 한번은 교사의 개인지도로서 아동과 직접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아동의 잘못된 습관 등을 고친다. 그리고 그룹지도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재교육하고, 피아노 주법에 대해 보완 지도한다.

개인지도와 그룹지도를 병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

둘째, 자료제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 간에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

혼자만의 학습은 학습의 반응이 한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A·B·C 세 어린이가 동시에 교육을 받을 경우 A어린이는 다른 두 어린이의 음악에 대한 반응과 음악 활동을 보며 음악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봄으로써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넷째,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연령이 비슷한 또래 아동들은 서로에게 관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는데, 교사가 한 아동에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강화를 줄 때, 다른 아동들도 그 행동을 따라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서로가 좋은 행동으로써, 즉 교사가 바라는 방향으로 행동이 강화된다.

다섯째, 교사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생기므로 아동이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재교육할 수 있고, 피아노 연주에 필요한 테크닉을 세세하게 교육할 수 있다.

5) 올바른 자세¹⁴⁾

(1) 앉는 자세

자세 하나에도 학습에 임하는 학습자의 마음가짐이 잘 드러나므로 도입시부터 나쁜 자세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의자는 아동의 신체 발달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의자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손과 팔이 수평을 이루지 못하면 타건(打鍵)이 불안정해지며 섬세한 표현이 어렵게 된다.

14) 박서미(1996), “조기 피아노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도의 필요성”, 碩士學位論文,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p.24-29

의자에 앉을 때에는 의자의 1/2정도의 위치에 앉는 것이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좋다. 의자에 너무 깊게 앉으면 체중이 뒤로 쏠려 팔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너무 앞 쪽에 앉아도 발에 힘이 들어가 치기가 어렵다.(그림 1)

(그림 1) 앉는 자세



- ① 깊숙이 앉은 자세
- ② 발에다 몸무게를 의지한 자세
- ③ 발로 의지하되 몸무게가 의자에 고정된 자세

발은 적당히 벌려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오른발은 오른쪽 페달에 왼쪽 발은 왼쪽 페달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초기 학습단계에서는 페달사용이 거의 없으므로 발 받침대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 신체적으로 안정된 균형을 이루며 하복부에 힘의 중심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등은 꼳꼳이 세우고 다소 앞으로 기우는 자세가 좋은데 뒤로 버티거나 앞으로 숙이거나 하게 되면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며 피로가 빨리 오게 된다. 피아노의 가운데 다음을 중심으로 앉아서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보면대를 바로 보며, 어깨에서 자연스레 내린 손은 건반 위에 얹고 팔꿈치와 거의 수평이 되게 한다.

피아노를 치게 되면서 음악적 표현을 위한 흔들림은 자연스러우나 리듬이나 박자를 맞추느라고 목을 빼거나 지나치게 몸을 흔들다든지, 고개를 까닥거리는 등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여 실제로 피아노 앞에서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 건반과의 거리가 적당한가?

- ① 앉은키가 커지게 등을 쪽 펴서 피아노 의자의 앞쪽으로 앉도록 한다.
- ② 팔을 쪽 폈을 때 주먹이 열린 피아노 뚜껑에 닿도록 한다.
- ③ 몸이 기울어지면 의자를 움직여 적당한 거리를 찾게 한다.

2. 의자의 높이는 알맞은가?

- ① 손을 건반위에 올려놓았을 때 팔이 건반과 같은 높이에 있도록 한다.
- ② 높이가 맞지 않으면 방석을 깔아 알맞은 높이를 맞추게 한다.

3.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의 힘을 빼고 앉아 있나?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의 힘을 빼면 숨쉬기가 매우 편해진다.

4. 발은 바닥에 닿았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페달이나 발판을 바닥에 놓고 발을 올려놓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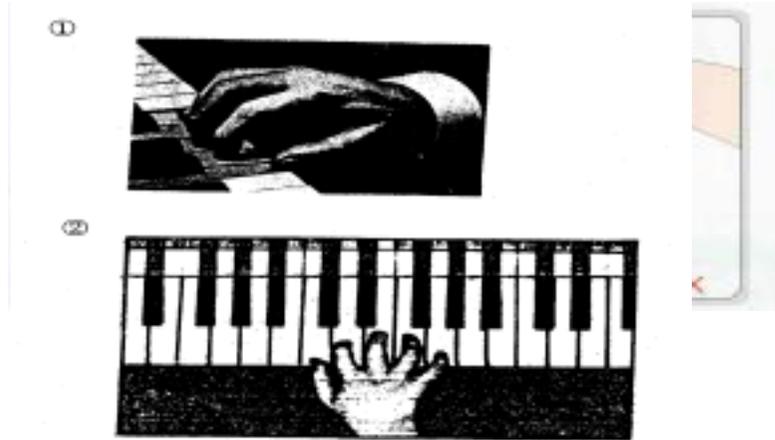
이렇게 하여 자세가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 주지시켜 올바른 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손과 손목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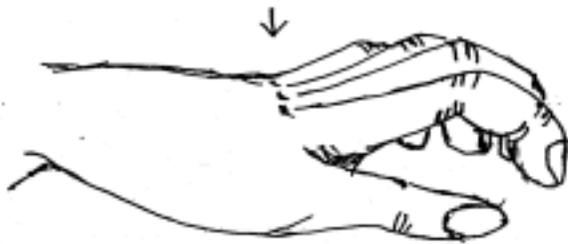
사람마다 손의 구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을 자연스럽게 건반에 얹은 후 손안에 달걀이나 공을 쥐듯 다섯 손가락을 가볍게 구부린다.(그림 2)

이때 손바닥이 너무 흰 건반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손등 관절이 내려앉듯 패이기 때문에(그림 3) 손등 관절이 다소 올라오는 듯이 아치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림 2) 손과 손목의 올바른 모양



(그림 3) 잘못된 손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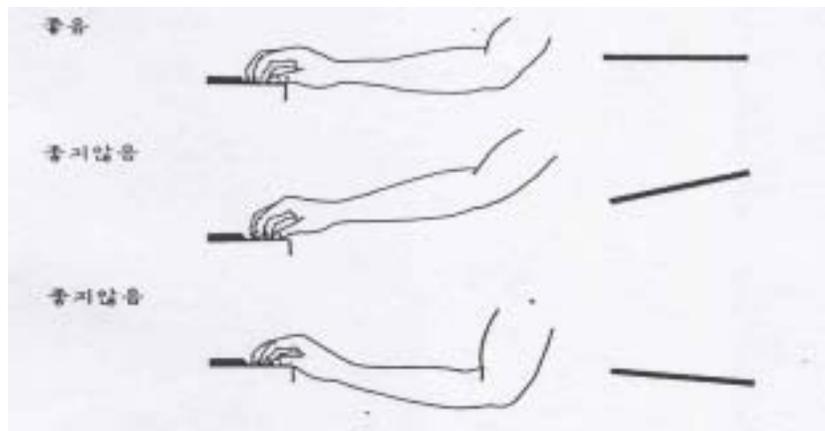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손목은 손등과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손목이 아래로 처지면 손가락이 뿔뿔해져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이다 보면 손가락에 무리가 가는 수가 많다.(그림 4)

팔꿈치를 옆구리 쪽에 가까이 대고 조금 앞으로 내밀어 옆구리 가장자리에 닿게 하면 손목이 굽어지지 않는다.

(그림 4) 손목과 손등의 자세





(3) 팔과 팔꿈치 자세

어깨를 편히 낮추고 팔은 힘을 풀고 팔꿈치는 옆구리 가장자리에 닿게 한다. 팔꿈치를 옆구리쪽 가까이에 대는 것은 엄지손가락의 뼈와 새끼손가락의 뼈가 교차하도록 하여 손끝에 힘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 팔꿈치를 벌리게 되면 엄지손가락의 뼈와 새끼손가락의 뼈가 평행이 되기 때문에 팔꿈치와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억지로 힘을 주어 치게 되면 손 전체가 경직되어 버리게 된다.

양 팔꿈치를 벌린 자세로 손을 건반 위에 놓아 보면 강한 손가락인 엄지에 중심이 놓이게 되어 약한 손가락에는 더욱 힘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피아노는 손가락의 힘만으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팔꿈치의 힘에 의해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6) 손가락의 훈련법

(1) 운지관(運指觀)의 정립

피아노 교육에 있어 운지법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연주능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건반악기는 어느 손가락으로 하든지 음이 나기 때문에 운지법이 무시되기 쉬우나, 아무리 뛰어난 기법의 훌륭한 연주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운지법 때문에 의도대로 연주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평범한 연주자 보다 뒤떨어지게 된다.

연습을 시작하면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운지법을 지키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며 이것저것 쉽게 변경하면 기술의 향상을 저해하고 미스터치를 유발시키므로 불합리한 변경은 삼가야 한다.

체르니(Czerny,) 「피아노 주법에 대해 소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잘못된 단 한 개의 손가락 때문에 패시지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여 음향을 조잡하게 하거나, 고르지 못한 연주를 하거나, 미스터치 등 의도대로 연주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하였고 뉴먼(Newman, Willam)은 「피아니스트의 문제점」에서 “건반악기에서의 운지법의 선택법과 준수도의 여하에 따라서 연주가 난조에 빠지거나 안정되어진다. 피아노의 운지법은 기억과 무대의 안정감, 기술의 조절, 학습의 속도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안정도의 확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어찌하여 운지법이 이와 같이 무시되고 있는 것일까”¹⁵⁾ 하는 안타까움을 체르니나 뉴먼이 말하였지만 현재에 와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2) 손가락 연습

손가락은 입문시의 기초 연습부터 팔을 잘 지탱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손가락의 테크닉에서 한 개의 손가락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 못되면 테크닉 전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반면, 손가락 테크닉이 확고히 다져진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테크닉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파급 효과를 주게 된다.

좋은 운지법이란 가능한 한 각 손가락을 휴식하게 하고 개개의 손가락의 배열을 교묘하고 고르게 하여 힘이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운지법이다. 긴 손가락은 짧은 손가락에 비하여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긴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편이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쇼팽은 지도의 첫째 목표를 유연성에 두었다. 즉 아름다운 연주의 첫째 조건은 손의 유연성과 손가락의 개성과 독립성에 대하여, 각 손가락에는 고유한 터치의 매력이 있으므로 그것을 손상하지 말고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처음부터 손가락을 독립시켜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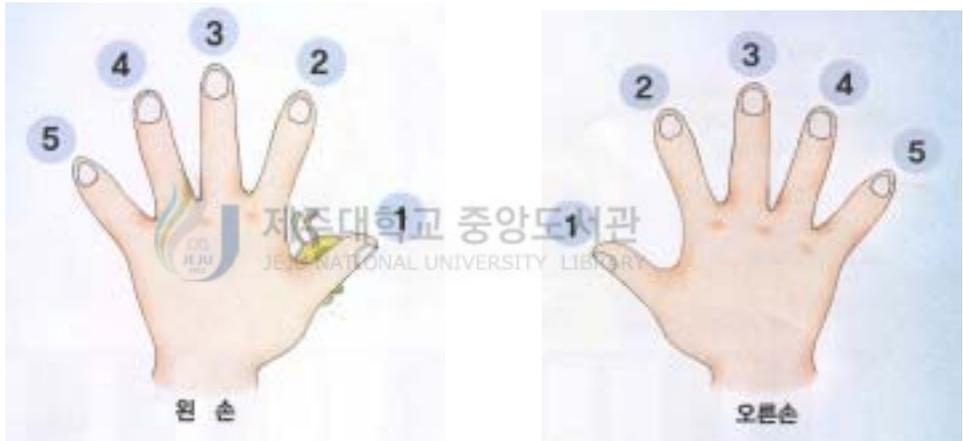
자연스럽게 손을 건반에 놓으면 처음에는 힘이 없어 보이나 손에 필요 없는 긴장을 주지 않게 되므로 근육이 빨리 발달하여 오랜 연습 후에는 강하고 민첩한 손가락을 갖게 된다.

15) Newman. William. S(1974), 「The Pianist's Problems」, (N.Y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p.98.

또한 손가락의 맨 끝 보다는 지문 쪽을 사용하여 굳센 역할을 하는 탄력 있는 근육을 이용함으로써 음절 조절을 더욱 잘 할 수 있다. 모든 손가락은 손등의 관절부터 움직여야 하며 손등은 손목보다 절대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우선 건반을 치기 전에 반드시 음폭에 대한 박자와 손가락 번호, 손과 손목의 위치를 정확히 익히게 한 다음 건반을 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손가락 훈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기본자세는 힘이 전달되는 모든 신체부위가 자연스럽게 헛된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어린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단계적으로 간단한 손가락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5)

(그림 5) 손가락 번호



(그림5)의 손가락 번호를 이용하여

- ① 양손의 각 손가락을 훈련한다.
- ② 양손 1번, 양손 2번, 양손 3번, 양손 4번, 양손 5번을 함께 훈련한다.
- ③ 왼손 5번과 오른손 1번, 왼손 4번과 오른손 2번, 왼손 3번과 오른손 3번, 왼손 2번과 오른손 4번, 왼손 1번과 오른손 5번을 함께 훈련한다.

① 오른손 손가락 연습

(악보 3)



② 왼손 손가락 연습

(악보 4)



③ 양손 손가락 연습

◎ 양손 갈러가기 손가락 연습

(악보 5)



◎ 양손 같이가기 손가락 연습

(악보 6)



7) 기초 주법

(1) 레가토(legato)

레가토란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매끄럽게 연주하는 것인데 그 뜻은 아이들이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이해시킬 수 있다.

즉 교사와 아동이 함께 걸어가면서, 걸음을 걸을 때 한발이 내려가야 다른 발이 올라갈 수 있듯 한음이 연주되고 다음 음을 연주할 때는 처음 음을 두 번째 음이 연주될 때까지 잡고 있다가 두 번째 음이 연주되면 첫

번째 음을 때는 식으로 하는 것이 레가토의 타건법이다. 즉 건반 위에서 걷는 듯이라고 이해시킬 수 있다.¹⁶⁾ 교사는 건반위에서 실제로 레가토 연주를 해 보이고 아동은 흉내 내도록 한다. József Gát¹⁷⁾는 “초보자의 기술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책무는 레가토 연주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이 레가토 주법은 학습 초기부터 지도하여야 한다.

레가토는 문자로 표현할 때도 있으나 보통 악보에서는 이음줄(slur)기호로 표시하게 되는데, 음높이가 다른 2개 이상의 음표 위나 아래에 그은 줄을 이음줄(slur)이라고 하며, 이 슬러가 있는 부분은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라는 뜻이다.

아이들에게 지도할 때는 교사가 실제 피아노로 (악보 7)과 (악보 8)의 오른손과 왼손 손가락 번호에 맞추어 시범연주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본다.

(악보 7) 레가토 오른손 연습



(악보 8) 레가토 왼손 연습



이때에 주의할 점은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음을 뭉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세심하게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2) 스타카토(staccato)

스타카토란 건반을 누르고 바로 끌어 올리는 즉, 음을 짧게 끊는 주법이다. 그리고 스타카토는 음을 강조하여 날카로움을 더하기 위해 사용된다. 초보의 아동에게 지도할 때는 구부린 손가락을 높이 들어 올려 건반을 재

16) 제임스 베스틴(1990),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 음악춘추사, p.111.

17) József Gát(1913-1967) 헝가리 태생, 부다페스트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바르토크에게 작곡을 코다이에게 사사. 저서로는 “피아노 연주의 테크닉”

빨리 치고 손가락은 처음과 같이 빨리 날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스타카토로 교사가 먼저 연주한 다음 아동이 모방하여 연주하게 지도한다. 그리고 대다수 아동들은 스타카토가 계속될 경우 손가락을 아무렇게나 건반 위로 스치고, 또 정확히 들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교사가 쳐주면서 세심히 지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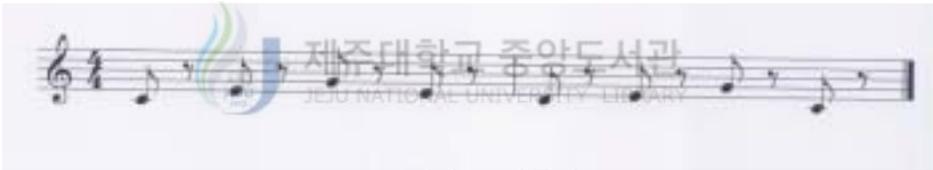
스타카토는 ①스타카토 · ②메조스타카토 · ③스타카티시모 세 가지로 나누어 연습을 해야 하는데,

①스타카토(Staccato)는 음표의 머리 쪽에 ‘·’로 표시하며 음표의 절반을 소리내고 절반을 쉬도록 (악보 9)처럼 짧게 끊어서 친다.

(악보 9) 스타카토 연습



쓰 기



피아노 연주시

②메조스타카토(Mezzo Staccato)는 음표의 머리 쪽에 ‘~’로 표시하며, (악보 10)처럼 음표의 3/4 길이만큼 소리를 내고 1/4 만큼 쉬다.’

(악보 10) 메조스타카도 연습



쓰 기



피아노 연주시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의 음들을 패턴으로 묶고, 그 패턴들을 음악적인 사건으로 만들며, 그 안에서 음악적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연주가는 자신이 연주하는 작품의 심장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초견능력은 새로운 곡을 접하면 접할수록 발전하게 되어 있다.

(2) 초견 연주시 지켜야 할 규칙

1. 항상 박자를 세면서 연주한다.

모든 곡에는 항상 일정한 박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를 내어 박자를 세면서 연주한다.

2. 중간에 멈추거나 앞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과 같다.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가듯이 한다.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고쳐서 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앞으로만 간다.

(3) 초견 연주전 꼭 점검하는 습관 기르기.

1. 조표를 본다. - 올림표나 내림표가 있는지

2. 박자표를 본다. - 큰 소리로 박자를 세면서 곡을 연주한다.

3. 붙임줄이 있는지 확인한다.

9) 피아노 기초 단계의 교재분석

피아노 교재는 음악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들의 흥미와 음악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들의 능력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흥미란 관심이 어느 일정한 대상에게 향하고 그 대상에 집착하는 행동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즉 흥미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선택하고 추구하는 형태이다.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는 경우 학습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흥미는 동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흥미에 부합된 학습과제 일수록 학습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 눈과 손가락 끝에서만 음을 찾아가며 치는 연습방법으로는 훌륭한 피아노 연주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이며 기초적인 음악이론 교육을 철저히 교육시켜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악보를 바로 읽고 분석할 줄 알며 음악적 이해력을 길러 변주할 수 있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흥미를 잃지 않는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아동들이 음악을 이해하며 분석할 줄 아는 아동들로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입기의 피아노 교본이라는 것은 피아노의 기초적인 주법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써 손을 쓰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음악적인 이론들을 조금 첨가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주로 기술 습득이 중심적인 경향이나, 오늘날의 교본은 이론과 솔페지(Solfege)의 면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본도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 경향이다. 따라서 기초 교재의 선택은 처음 피아노를 접하는 유아들에게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 기초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Beyer, Alfred, Bastien 그리고 Adventures 각 교재의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피아노 조기 교육에 필요한 교재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교재 선택시 유의점

1.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음의 배열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2. 내용이 풍부하고 아동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거나 변화가 있는 곡이어야 한다. 아동들이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주제로 한 곡들을 선택하여 친밀감을 느끼도록 한다.
3. 음악성의 기법이 골고루 취급되어야 한다. 즉 리듬, 선율, 화성, 템포(Tempo), 프레이즈(Phrase), 조성, 악곡구성 등이 초보적 견지에서 골고루 다루어져야 한다.
4. 교재의 순서나 질이 창조적인 견해에서 제시되어, 이론 중심이 아니라 음악적인 경험이나 표현기능의 배경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5. 교재의 곡과 관련된 그림을 넣어 그림을 통하여 아동들의 감각을 적중시키고, 그림의 배치가 음악과 미술면에서 볼 수 있는 심미적인 표현이 강조되어야 한다.
6. 교재의 연습곡 하나하나를 단조롭게 반복 연습 할 것이 아니라 리듬감, 화성감, 형식감, 속도감, 강약감 등 음악적인 감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1) 바이엘(Beyer) 교본의 특징

바이엘 피아노 교본은 독일의 작곡가 바이엘(F. Beyer 1803-1863)에 의

해 작곡되어졌으며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초보단계의 피아노 교본으로써 1850년경에 출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교본은 우리나라에서도 피아노 교육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교재이다. 누구든지 연습하기에 친근감이 가는 보편적인 교재로써 반복연습을 통하여 실기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본으로 평가된다.

①조성적인 면

기초 화음이 주로 사용된 고전적인 교본으로 임시표, 조표 및 꾸밈음이 후반부에 편재되어 있다. 여러 조성의 훈련을 위한 구성이 아니고 중앙 C 음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G-D까지, F-C까지, D-A까지, A-E까지의 건반을 통해 다섯 손가락의 포지션을 끌고루 옮기면서 건반 및 조성감을 익히도록 되어 있으나 C key이외의 조성은 구성 비율이 많이 낮아서 검은 건반에 대한 익숙함과 조표가 여러 개 붙는 조성들에 대한 친숙함을 획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②형식적인 면

하지만 손가락의 영역을 처음에는 5개의 음으로 한정시키지만 점차 6음, 7음 옥타브로 순차적인 영역 확장을 도모하는 조직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음표의 배열의 면에서는 처음에는 4분 음표와 온음표를 배우도록 하고 있지만 점차 2분 음표, 점 2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로 단계별로 익혀나아갈 수 있도록 제재곡을 조직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제재곡의 형식면에서는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프레이즈는 2마디, 4마디 혹은 8마디의 단위를 이루고 있으며, 구조는 2부 형식과 3부 형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후에 Coda가 붙거나 보다 복잡한 형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곡이던지 구조가 명료하고 파악하기에 쉬우므로 아동들에게 곡의 구조를 분석하고 파악하도록 가르쳐서 앞으로 학습해야 할 곡들의 구조를 빨리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기에 적합하도록 악곡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③화성적인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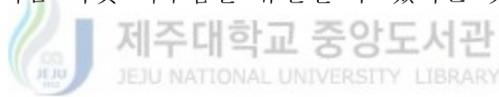
화성 면에서는 주로 주요 3화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지형은 대개 딸림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끝이 나는 정격 종지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정격종지감이 강조된다. 음표의 음역 면에서는 높은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의 오선 안에서의 독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재곡이 배치되어 있으며, 오선 위의 덧줄들이 붙은 음표가 간헐적으로 나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익히도록 하며, 반복학습이 되게끔 덧줄 음표의 악곡이 계속 배열되어 있어 구성이 비교적 짜임새가 있다.

따라서, 조성이 몇 개의 곡에만 의존되어 있어 균형잡힌 조성 공부 어렵고 반주가 왼손에 멜로디가 오른손에 주어진 곡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손의 균형잡힌 기능 연마가 어렵다. 균형잡힌 기능 연마를 위해서는 하논을 병용하기를 권한다. 이해가 빠르고 인내심이 있는 유아에게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다른 교재의 이론책을 병행하면 좋겠다.

④양식적인 면

고전과 초기 음악적 양식과 어법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양식의 음악적 소재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비슷한 내용의 제재곡이 많고, 손가락 움직임 중심의 악곡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이며 선율적인 표현면에서 부족하며, 학습하는 아동들로 하여금 자칫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베스틴(Bestien) 교본의 특징

베스틴 교본은 1963년에 베스틴 부부가 공동으로 작곡한 교본으로 1976년에 출판되었다. 개념에 대한 간결한 설명과 편집 구성, 매혹적이며 유머러스한 천연색으로 된 그림은 개념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가시켜주며 근래에 가장 많이 알려진 교재 중의 하나이다. 음표도 다른 교재에 비해 크고, 그림이 그 곡의 분위기에 맞게 잘 표현되어 지고 있다. 이 교본은 가장 초보적 것에서부터 소나티네(Sonatine) 정도까지의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순히 피아노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의 기초지식으로 노래하는 것, 악전, 독보법, 화성붙이기, 창작, 즉흥연주 등으로 피아노를 통하여 음악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음악 교육서로 평가된다..

그리고 전 과정에 걸쳐 이론과정을 두고 있어 음악교육 전반에 걸쳐 짜임새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피아노의 88개 건반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처음부터 검은 건반 사용과 낮은 음자리표 사용을 시도하였고. 모든 곡은 리듬연습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해석을 붙여 두었으며 예비악보를 많이 사용했다. 베스틴 교본의 구성은 'Piano Lesson'이라는 주 교재를 통해서 이

론과 독보, 연주기술 등의 기초를 하게 되어있고 부교재로 이론교재 (Theory Lesson), 테크닉교재(Technique Lesson), 연주교재(Piano Solo) 등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보다 자세하게 이론 연주기술 등을 다루며 응용 하게 되어 있으며 초견(Sight Reading)이 추가되어 초기단계부터 초견연주 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하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조성적인 면

베스틴 교본은 다양한 조(Multiple Key)를 위한 방법(Method)으로써 다 양한 조를 처음부터 경험하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여러 조성에 쉽게 친숙 해지며 흑건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하며 초기단계부터 조성 감을 뚜 렷하게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C Key를 완전히 익히고 나서 여러 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단계에서 5선보 를 이용하지 않고 리듬만으로 악보를 보며 음표의 상하 위치에 따라 C에 서 G, D에서 A, G에서 D등으로 다섯 손가락을 옮겨서 같은 선율을 재 현해 내는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옮김 연주와 조성 감, 조표 및 흑건 에 대한 친밀감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다.

②악곡의 구성적인 면

악곡의 구성 면에서는 동요에서부터 민요, 찬송가, 캐롤, 축제 음악, 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여러 음악적 스타일의 어법에 익숙해 질 수 있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 바이엘은 같은 스타일의 제재곡만 다루는데 비해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동들로 하여금 보다 신선함을 느끼게 하여 흥미를 잃지 않도 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③기능적인 면

연주 면에서는 손가락의 기계적인 훈련과 사용에만 치우치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프레이징,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 음색의 조절 및 페달사용 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면서, 정서적이며 음악의 본질적인 면의 표현능력을 기르도록 배려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본이라 할 수 있다.

④실용적인 면

베스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실용성이라 볼 수 있다. 반주능력, 조옮김능력 및 초견 능력신장 그리고 음악생활에 실제적이고, 가장 유익한 능력을 개발하는 자료들이 많다. 실기교본과 이론 및 창작교본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실기교본의 발전과정이 느리다. 유아들에게 조성 감각을 길러주는 힘이 있다. 여러 가지의 응용곡이나 삽입곡 등으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고 진도별로 창작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베스틴은 보충 교재가 많다. 주교재는 피아노, 연주, 테크닉, 이론 교본과 보충교재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적인 음악 교육 전집이라 할 수 있다.

⑤이론적인 면

베스틴 교본은 학습 내용이 간단하여 유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급에서 2, 3, 4, 5도 음정, 2급에서 6, 7도, 3급에서 8도 음정이 나오고 있으며 서서히 제시되는 편이다. 음정의 성질에 대한 이론은 학습자가 어렵다고 느끼기 쉬운 부분인데 음정과 화음의 종류에 대한 2가지 학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므로 학습자에게 좀 벅찰 수 있다.

장음계는 12개의 모든 조가 소개되는 반면 단음계는 a, d 단조 밖에 소개되지 않아 학습 내용이 제한적이다.

조성은 12장조의 각 조를 시각적인 면과 터치 면에서 일치되는 점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리해 가르치고 있다. 각 조를 점진적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⑥화성적인 면

주요 3화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조의 조성, 음계, 화음의 학습이 연결되어 나온다. 학습자가 반주의 능력을 기르는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으뜸화음과 딸림 7화음을 사용하여 펼친 화음 사용시 부드러운 화음 진행을 하기 위한 이론면의 지도이기도 하며, 화성학에 대한 예비지식을 기초부터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화음의 종류로는 장·단·증·감3화음, 감7화음까지 포함하고 있다.

(3) 알프레드(Alfred) 교본의 특징

미국 알프레드 출판사에서 1981년 출판한 알프레드 교재는 아만다 빅레스코(Amanda Vic Lethco), 모튼 매누스(Morton Manus), 윌라드 A. 팔머(Wilard A. Palmer), 랭카스터(E. L. Lancaster) 등에 의해 작곡되어진 책

이다. 저자들은 많은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교재 내용을 지도 해본 다음,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였다. 여러 명의 저자가 각각의 전문 영역을 맡아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설명이나 학습내용이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레슨 교재, 테크닉 교재, 이론 교재, 청음 교재, 독주곡집 등으로 나누어 각 교재의 내용들이 서로 잘 연관되어 있다.

처음에는 오선악보 대신에 무선악보(Off-staff)로 음표와 손가락 번호만을 사용하여 리듬과 건반을 익히게 하였고, 학습 방법은 손뱁에 맞추어 박자를 세면서 악보를 읽고, 건반의 넓은 영역을 고루 다루게 하며 검은 건반을 먼저 다루게 하여 건반의 전체 조직과 친근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다이내믹의 개념을 처음부터 가르쳐서 음악을 섬세하게 연주하는 능력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알프레드 교본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연령별의 수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교재가 있어서 각각의 내용이 유사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배려와 자발적인 학습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짧은 흥겨운 연습곡과 재미있는 가사, 원색의 만화 삽화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편집 구성이나 색 표현이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그려져 있는 삽화들이 지도 내용과 잘 연결되어 있어서 피아노를 배우는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보법 면에서는 처음부터 오선보를 다루지 않고 음표의 고저에 따라 피아노를 치도록 하며, 이때 음자리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자리를 지정하지 않아 여러 건반에서 연주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옮김 연주를 익히고 아울러 조성감의 확립과 흑건의 지배력도 획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무선악보의 기보법을 통해 음표간의 거리와 고저에 따라 2도, 3도 등의 음정 개념을 익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옮김 연주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음자리표도 G음자리표보다 F음자리표가 먼저 등장하며 이것은 아동들이 G음자리표는 익숙하면서도 F음자리표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처음부터 낮은음과 F음자리표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간단한 모티브를 주어서 간단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자발적인 학습과 창의력 배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음정은 반음정, 온음정의 개념과 테트라코드를 익히고, 음계를 익히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서는 선법도 익히게 되어 있다.

알프레드 피아노 교본은 아동들에게 음악의 기본을 익히고 이해하며 스스로 음악을 느끼고 즐기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습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가들의 피아노 작품 입문집으로서의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의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것들을 선별하여 각 시대의 음악적 양식과 어법, 연주 기술 및 주법의 해석 등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학습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작곡자의 자필 악보를 수록하여 원전판과 교정판의 차이점을 명시하고자 함으로써, 정확한 악보를 통해 정통적이고 정확한 해석과 주법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알프레드(Alfred) 피아노 교본은 아동들에게 음악의 본질적인 면을 익히고 이해하며 스스로 음악을 느끼고 즐기며,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습하는 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4) 어드벤처(Adventures) 교본의 특징

피아노 페다가지를 바탕으로 1993년 초판 출간되었으며 피아노 교수법 및 심리학 박사인 페이버(Randall Faber) 부부가 저술한 교본으로써 기존 교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피아노 교본이다.

어드벤처 교재는 ‘음정을 통한 독보법’ ‘가운데 도의 자리 접근법’, ‘다양한 손의 자리 접근법’의 장점들을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독보력을 키워 준다. 또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는 듀엣은 다양한 음색과 스타일, 여러 가지 반주 패턴을 경험시키며 흥미를 더해준다. 그리고 악기 연주 실력은 물론이고 자신감, 집중력, 인내심, 자기수양능력, 뛰어난 운동 능력까지 종합적인 성장을 이끌어 준다.

처음에는 오선악보 대신에 무선악보(Off-staff)를 음표와 손가락 번호만을 사용하여 리듬과 건반을 익히게 하면서 4가지 교재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레슨교재

레슨교재로서 피아노 페다가지를 바탕으로 중요한 음악적 개념과 테크닉

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각 단원마다 앞서 배운 개념들을 복습, 훈련시킨다.

② 이론 & 청음 교재

이론&청음으로는 레슨교재와 연계된 음악이론을 연습시키고 각 개념별 청음과 독보, 초건을 함께 훈련시킨다.

③ 테크닉 교재

테크닉&음악성개발로는 해부학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테크닉 훈련과 음악성 개발을 통해 예술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 한다.

④연주 교재

연주교재는 레슨, 이론, 테크닉 교재에서 익힌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응용하고 정서개발과 표현력 향상을 돕는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곡은 각 단원의 음악적 개념을 아름다운 연주곡으로 응용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8개의 급으로 나누어 각 급마다 레슨, 이론과 청음, 연주, 테크닉 그리고 음악성 개발 교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네 가지 교재가 상호강화 작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음악적 지식을 다지고 연주력과 음악성을 개발시켜 준다.



1급

피아노와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피아노 전 음역에 걸쳐 검은 건반부터 경험시키며,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맞추어 오선은 나중에 배우며 손의 위치만으로 음이름과 리듬을 쉽게 익힐 수 있게 한다.

악보 읽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C, G, F음을 강화 학습시키고 점진적으로 다른 음이름을 소개함으로써 ‘도는 1, 레는 2’하는 식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막아 준다.

2급

‘음정으로 악보 읽기’를 전 음역에 걸쳐 계속 훈련시키고, 높은 C 다섯 손가락자리와 G 다섯 손가락 자리를 소개한다. 으뜸음, 딸림음의 개념과 함께 화음의 기초도 배우게 하고, 레가토와 스타카토 연주법을 소개하여 기초 아티큘레이션을 탄탄하게 하며, 다양한 손의 자리에서 음악적인 연주를 하게하여, 5도까지의 음정 학습을 통해 독보력을 강화시킨다.

3급

다양한 조성을 소개하면서 음악적 흥미를 유발시키고 8분음표가 등장하고, C, G, D, A 장·단조의 다섯 손가락 자리가 소개되며, 조옮김과 화성반주법이 아름다운 곡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한다.

4급

손을 넘기는 아르페지오와 C, G, F장조 음계를 소개한다. 페달 연습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음악성과 연주력이 향상되며, I, IV, V 화음으로 자유롭게 반주 할 수 있게 한다.

5급

3/8과 6/8박자가 소개되며, 스윙리듬, 셋잇단음표 등 다양한 리듬이 등장한다. 반음계, 7도 음정, 한 옥타브 아르페지오 등을 익혀 연주의 폭을 넓히고 흥미로운 작품들을 통해 D장조 곡들을 익힌다.

6급

중급 단계의 매력적인 작품들을 연주할 수 있게 한다. 한 옥타브 단음계와 12개의 모든 장·단조의 3화음, 화음의 자리바꿈 등을 익혀 조성과 화음을 이해시키고, 반주 실력을 키우며, 리듬으로는 다양한 16분음표 음형이 소개된다.

7급

다양한 화음의 자리바꿈과 16분음표, 단조에 대한 학습이 강화되며, 우아한 타건과 셈여림에 주력하여 표현력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 한다.

8급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고하게 다져주며, 음역 전체를 넘나드는 옥타브 사용, 아르페지오, 다이내믹한 연주로 차원 높은 연주 테크닉을 습득, 연주력이나 음악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쌓게 되어 독립적인 음악가로 성장하게 된다.

Ⅲ. 결론

한때 조기교육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즉 조기교육이 인지발달이나 성격형성 등 원만한 인격형성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심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논란이었을 뿐 조기교육 그 자체에 대하여는 심층부를 다루지 못하였다고 본다. 조기교육 중에서 가장 빠른 조기교육은 아마도 태교라고 본다. 그런데 태교가 잘못이라고 보는 교육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그중에서도 조기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며, 조기음악교육을 피아노를 통하여 하는 지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음악은 음을 소재로 하는 시간적 예술로써 인간의 두뇌발달, 신체발달, 심미발달, 그리고 정서발달에 가장 도움을 주는 예술이다. 음악의 미적경험을 통해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라고 볼 때, 음악교육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두뇌발달, 신체발달, 심미발달, 정서발달 등의 성장이 어릴 때 일수록 빠르게 발달하며 그 영향이 한 평생을 좌우하는 인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며,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하여 조기 음악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피아노는 조기 음악교육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악기이다. 그 이유는 피아노는 다른 악기들에 비하여 음역이 넓고, 화성악기여서 음악의 3요소를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며, 악보와 건반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서 조기 음악교육에 가장 적절한 악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 피아노 교육은 바로 조기 음악교육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아노 교육은 단순히 유능한 연주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속에 음악을 심어줌으로써 아름답고 건전한 인격을 갖추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교육의 도입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신체발달 및 정신발달 단계와 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맞는 효율적 지도방법을 연구하여 피아

노를 통한 조기 음악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피아노 조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문헌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함으로써 피아노 조기 교육의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기 음악 교육에서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기 음악 교육은 전문가를 만들거나 연주를 만들려는 것에 그 교육 목적을 두지 않고 음악을 통해서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음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주적인 학습을 존중하는 오늘날의 교육에 있어서 내적 동기유발인 아동들의 흥미와 욕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발시켜 이를 토대로 하여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넷째, 과열된 교육열로 인하여 처음부터 바로 피아노 실기와 악보 읽는 법을 동시에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음악교육의 의의를 살려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게 지도해야하며, 종래의 주입식 위주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모든 가능성에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성숙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섯째, 개인지도와 그룹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심층 있는 연주능력과 음악성을 동시에 개발시킨다.

일곱째, 초견능력을 신장시켜 악곡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음악성을 키우고 나아가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여덟째 알맞은 교재를 선택하여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하며, 흥미를 잃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박영수(1988), 「피아노 주법연구」, 세광음악출판사.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 유덕희(1973), 「음악 교육학 개론」, 대구 학문사.
- 정세문(1983), 「음악과 학습지도」, 창지사.
- 박찬석(1981), 「올바른 피아노 교육」, 세광출판사.
- 이용일(1989), 「음악교육학 개설」, 현대악보 출판사.
- 안종배(1991), 「음악 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 박혜자, 「피아노 음악의 개성적 지도법」, 세광음악출판사
- 성경희(1988), 「음악과 교육」, 갑을출판사
- 제임스 베스트(1990),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 음악춘추사
- 이성삼(1982), 「음악교수법」, 세광출판사
- 성진희(1994), 「음악을 배우며 즐거움 얻는 건반 경험 프로그램」, 서울음악교육
- 정원식·이성노·이성진 공저(1988), 「현대 교육 심리학」, 교육출판사

<논문>

- 유영명(1973), “음악적 능력에 미치는 조기교육의 효과”,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은연(1992), “피아노 학원에서의 기초이론에 관한 지도 연구”, 碩士學位論文,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유경(1990), “피아노를 통한 조기 음악교육의 효과적 지도방안”, 碩士學位論文,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 박서의(1996), “조기 피아노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도의 필요성”, 碩士學位論文,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윤경(1997), “취학 전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관한 고찰”, 碩士學位論文,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후작(1991), “효율적인 초기 피아노 교육법”, 碩士學位論文,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희영(1982), “유아의 기초적 음악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옥경(1994), “조기 피아노 교육의 올바른 지도방법”, 碩士學位論文,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기타문헌>

세광출판사 편집부, “도입기 발달 단계에 대하여, 음악교육”, 1988年 11月

세광출판사 편집부, “유아기에 보이는 집중력과 그 발달과정”, 음악교육, 1990年

세광출판사 편집부, “올바른 자세와 호흡”, 음악교육, 1986年 10月

장기범, “음악적 능력 그 근원에 대하여”, 음악교육, 1989年 3月

장기범, “음악적 능력과 기타 능력들과의 관계”, 음악교육, 1989年 5月

音樂大事典, 신진출판사, 1976

<ABSTRACT>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Early Education of Music with
Piano and Teaching Methods Thereof**

Yang, Song-yeo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 Hong-yong

Music is time-based art using tune as an object and enormously helping people for their brain, physical, aesthet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ne of the most critical goals of music education is to elevate emotions and creativity through the artistic experience of music and to facilitate harmonious character development. Thus, music education should start early in one's childhood through various environments and diverse methods. The younger one receives music education, the faster one develops one's brain, physique, aesthetic, and emotion, hence critically forming the disposition for the life time.

Accordingly, we canno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arly education of music too much. Actually, many people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such early education of music and let their children learn music with a variety of music instruments. Among such instruments, piano is the most popular one that is used in early education of music. The reason for its popularity is due to its relatively great compass compared with other instruments, its readiness to fulfill the 3 elements of music by being a harmony instrument, and its easiness of learning based on the natural relation between note and keyboard. These characteristics of piano make the instrument the most appropriate instrument for children to learn.

Consequently, early education of piano is directly related to early education of music.

Piano education is not only to train great players but also to integrate music into learner's daily living, cultivate desirable and healthy mind,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eventu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ha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children whose age correspond to the early education starting point and accordingly develop efficient teaching methods. As a result of this examination, a solid ground for early education of music with piano is to be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contents and methods of early education of piano based on the documents and teaching experience, and present desirable methods of teaching pian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teach children music professionally, teachers should understand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phases of children.

Second, childhood music education should not emphasize too much of producing child prodigy or professional player, but it should rather focus on enriching children's general life experience through music.

Third, teachers should stimulate children's interest and desire for the internal motivation, since the education of today values independent and autonomous learning. Based on the internal motivation, it is recommended that teachers facilitate voluntary learning.

Fourth, instead of simultaneously teaching practical piano play and theoretical note reading from the very beginning of learning, which is a method fueled by the obsessive education frenzy, teachers should conduct genuine music education and teach children according to their cognitive development phases. Moreover, overcoming the previous method of cramming and passive education, teachers should design

various learning programs that stimulate children.

Fifth, teachers should understand genuine desire of learners, encourage them to explore all possibilities, and provide mature learning environment.

Sixth, teachers should apply individual tutoring as well as group teaching in order to develop in-depth playing technique and musical intuition simultaneously.

Seventh, by developing ability to readily recognize what children see for the first time, teachers should help them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music piece as a whole, so that musical intuition, memory capacity, and concentration skills of children are reinforced.

Eighth, appropriate study materials which can be physically managed by children are to be selected and teachers should encourage them to maintain interest and learn autonomously.